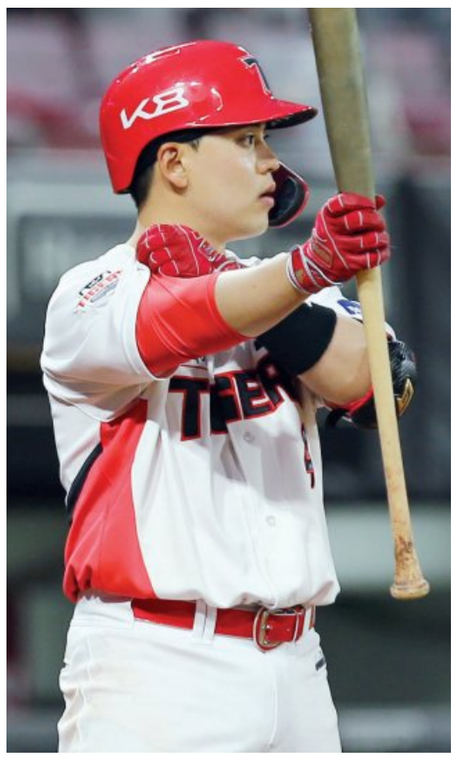
한승택

# 한승택 "KIA 야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초반 흐름 안 좋지만 잘 할 것
## 홈런포로 감 살려 상승세 예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팀 잘할 겁니다."

중요한 순간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감을 살린 KIA 타이거즈의 한승택이 팀의 상승세를 예고했다.

시즌 초반 KIA는 극과 극의 경기력으로 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기분 좋은 스윕승을 안고 지난 8일 문학으로 첫 원정길에 나섰던 KIA는 싹쓸이 패를 당하고 안방으로 복귀했었다.

그리고 12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도 선발 이의리가 흔들리면서 초반 흐름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시즌 세 번째 선발 출장에 나섰던 한승택이 반즈를 상대로 추격의 3점포를 쏘아 올리고,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점수를 만드는 등 4타점 활약을 했다. 이어 전력질주로 1루에서 홈까지 들어오면서 승부를 뒤집는 득점도 장식했다.

또 6-5로 앞선 9회초 수비에서는 송구 실책을 기록한 마무리 정해영을 잘 이끌면서 1점의 승리를 지켰다.

연패 탈출을 이끈 한승택은 13일에도 선발로 마스크를 썼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1회초 1사에서 쏟아진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다.

한승택 개인으로는 타격 상승세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선발 한승혁이 0.1이닝 3실점으로 흔들렸던 만큼 팀을 생각하면 반가운 비가 됐다.

14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한승택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팀으로는 출발이 좋지 않아서 비가 내린 게 다행이었다. 승혁이 형도 멘탈 정화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직 게임 많이 남아 있다"고 웃었다.

선발진의 난조로 3번의 선발 출장에서 모두 힘겨운 1회를 보낸 포수 한승택은 '1회'를 고민하고 있다.

한승택은 "1회가 안 좋아서 포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출발이 좋아야 다음 회도 좋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 많이 하고 있다"며 "1회 대량 실점하면 타자들도 힘이 빠진다. 안 좋더라도 최소 실점을 해야 한다. 3점 이내로 막아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흔들리는 내야'도 포수 입장에서는 고민이지만 동료들을 믿고 하던 대로 투수들을 리드할 생각이다.

한승택은 "실책이 나오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라운드 흙을 바꿨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야수들이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 내야수들 잘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수비가 우선이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최대한 집중해 입지를 넓히겠다는 각오다.

한승택은 "제일 큰 게 멘탈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잘 되든 안 되든 똑같이 연습하고 있다"며 "(타석에서) 망설이면 안 된다. 그냥 자신 있게 하려고 한다.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스윙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내가 살길이다. 에버리지가 높은 타자가 아니니까 유리한 카운트에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해야 확률이 높다. 결과가 나오면 선수는 자신감이 생긴다. 한 경기였지만 팀 승리에 역할을 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심적으로 더 편해졌다"고 말했다.

KIA가 기대와는 다른 초반을 보내고 있지만 한승택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한승택은 "문학 원정을 갔는데 주말이라 팬들이 정말 많이 오셨다. 많이 오시니까 야구하는 재미가 있다. 분위기가 틀리다. 우리가 잘해야 많이 오실 거니까 잘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며 "다들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하는 선수가 없다. 달라졌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착실하게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1

## 양현종 2000이닝 투구
## 34세 1개월 13일
## KBO리그 최연소 기록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사진)이 KBO리그 최연소 2000이닝 투구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개인 통산 2000이닝을 채웠다.

송진우(3003이닝), 정민철(2394.2이닝), 이강철(2204.2이닝), 김원형(2171이닝), 배영수(2167.2이닝), 한용덕(2079.1이닝)에 이어 KBO리그 역대 7번째이자 기록이다.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2002년 이강철 이후 두 번째 기록이다.

또 34세 1개월 13일에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최연소 2000이닝 주인공에 등극했다. 앞선 기록은 2006시즌에 정민철이 기록한 34세 2개월 9일이다.

양현종은 지난 4일 LG전, 8일 SSG전에서 각각 6이닝을 소화하면서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1998이닝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날 2회 2000이닝을 돌파했다.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07년 KIA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같은 해 4월 7일 잠실 LG전에서 1이닝을 소화하면서 KBO리그 역사를 시작했다.

이후 14시즌을 보내면서 3시즌(2007·2008·2012년)을 제외한 남은 시즌에서 모두 100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특히 2014시즌부터 2020시즌까지 170이닝 이상을 투구하면서, KBO리그 좌완 최고 7년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도 만들었다.

최연소 2000이닝 주인공이 된 양현종은 통산 승리 4위, 탈삼진 4위, 이닝 7위 등 각종 통산 투수 부문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어린이팬 데이' 프로모션
## 챔스필드 5월 29일 SSG전

KBO와 10개 구단이 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팬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BO와 10개 구단은 정규시즌 중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4월 24일, 5월 29일, 6월 26일, 7월 31일, 8월 28일)을 '어린이팬 데이'로 지정하고, 어린이 팬을 위한 프로모션에 나선다.

이에 맞춰 구단별 어린이 팬을 해당 경기의 시구·시타자로 선정하거나 구단 특색에 맞게 어린이 팬을 초청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당일 경기장을 찾는 어린이팬과 가족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작해 선물할 계획이다.

첫 '어린이팬 데이'는 오는 24일 진행된다.

KBO는 리그 40주년을 기념하는 40주년 공인구를 어린이팬에게 선물하고, 어린이와 경기장을 찾은 가족에게는 메디힐 마스크팩을 선물한다.

KBO와 10개 구단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어린이팬을 위한 지속적인 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의 팬 등 다양한 팬 층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챔피언스필드에서는 5월 29일 SSG전, 7월 31일 SSG전, 8월 28일 두산전에서 '어린이팬 데이'가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3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에서 리버풀의 호베르투 피르미누(오른쪽)가 벤피카를 상대로 자신의 두 번째 골로 이어진 슈팅을 하고 있다. 이날 리버풀은 벤피카와 3-3 무승부를 기록해 합산 스코어 6-4로 준결승에 올랐다. /연합뉴스

# 맨시티·리버풀, UEFA 챔스리그 준결승 진출

## 맨시티-비야레알, 리버풀-레알
## 4강전 대진표 확정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이상 잉글랜드)가 1차전에서 잡은 승기를 2차전에서도 이어가며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에 진출했다.

리버풀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UCL 8강 2차전 홈 경기에서 벤피카(포르투갈)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1·2차전 합계 점수로는 6-4로 앞서 4강행을 이뤄냈다.

대회 우승을 이뤘던 2018-2019시즌 이후 처음으로 4강에 오른 리버풀은 3시즌만의 유럽 왕좌 탈환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다.

리버풀의 준결승 상대는 첼시를 꺾고 올라온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다.

리버풀은 전반 21분만에 코스타스 치미카스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센터백 이브라히마 코나테가 헤더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벤피카는 전반 32분 리버풀의 수비 실수를 틈탄 곤살루 하무스의 중거리 슈팅으로 만회골을 넣어 합계 점수 2-4로 따라붙었다.

그러나 벤피카의 실낱같은 역전승 희망을 리버풀 공격수 피르미누가 멀티골로 무참히 부숴버렸다.

피르미누는 후반 10분 디오구 조타가 왼쪽에서 넘겨준 패스를 문전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득점했다.

피르미누는 후반 20분 치미카스가 강하게 문전으로 차올린 대각선 프리킥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고, 4강 진출을 확신한 듯 시원한 발차기 세리머니를 펼쳤다.

벤피카는 후반 28분 로만 야렘추크, 36분 다윈 누녜스의 연속골로 2차전만 놓고 보면 3-3으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합계 점수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에 골이 나왔다.

맨시티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8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와 0-0으로 비겼지만, 1차전에서 1-0으로 이긴 터라 4강에 진출해 사상 첫 대회 우승 도전을 이어갔다.

맨시티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올라온 비야레알(스페인)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맨시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선 지난 10년 새 5차례 우승하며 '최강팀'의 면모를 뽐내고 있으나 UCL에서는 유독 우승컵과 인연을 맺지 못한 가운데 지난 시즌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오른 결승 무대에서 첼시에 무릎 꿇었다.

AT마드리드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던 맨시티는 전반 30분 혼전 상황에서 일카이 귄도안과 케빈 더브라위너의 슈팅이 잇따라 상대 수비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AT마드리드는 전반 12분 앙투안 그리에즈만이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이 골대 왼쪽으로 빗나가며 절호의 득점 기회를 날렸다.

/연합뉴스

# 전남드래곤즈, 아시아 챔스리그 첫 16강 노린다

## 오늘 필리핀 UCFC와 첫 경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아시아챔피언스리그(이하 ACL)에 출격한 전남 드래곤즈가 첫 16강을 노린다.

K리그2 첫 FA컵 우승팀으로 ACL 티켓을 거머쥔 전남은 지난 11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적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G조에 속한 전남은 유나이티드시티FC(필리핀), 빠툼유나이티드(태국), 멜버른시티FC(호주)와 16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전남은 15일 밤 11시 유나이티드시티FC(이하 UCFC)와 첫 경기를 갖고 16강 도전을 시작한다.

UCFC는 2년 연속 ACL 참가하는 팀으로 필리핀 국가대표팀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UCFC는 현재 자국리그 PFL(Philippine football league)에서 2승 2무(9골 1실점)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있다. 빠른 발을 가진 측면공격수 센드라(FW)와 침투패스가 우수한 미드필더 주라보예프(MF)가 전남의 골문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BG빠툼유나이티드(이하 BGFC)도 2년 연속 ACL 참가하는 팀으로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ACL에서 울산현대와 같이 조에 소속돼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BGF는 현재 자국리그 Thai LEAGUE1에서 5연승을 달리며, 리그 2위에 올라있다.

브라질 국적의 디오고(MF)와 파워와 골 결정력을 겸비한 싱가폴 국적의 익산(FW)이 '경계대상 1호'다.

맨체스터 시티의 주영 주체인 시티 풋볼 그룹에서 운영하는 멜버른 시티(이하 MCFC)는 2020-2021 호주 A LEAGUE 우승팀이다.

지난 시즌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하며 처음 ACL 출전권을 획득했고, 자국리그 호주 A LEAGUE에서 13승 7무 4패로 리그 1위에 올라있다.

24경기에서 52골(31실점)을 터트린 막강한 공격력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호주국가대표 공격수이자 2년 연속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제이미 맥클라렌(FW)이 전남 골문을 노리게 된다.

전남은 특유의 '짠물수비'와 막강 외국인 선수들로 16강을 겨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짧은 공백이 예상되는 김현욱(MF), 장성재(MF)의 빈자리를 부상에서 돌아온 이석현(MF)과 유헤이(MF)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리그에 완벽적응한 플라나(FW)와 발기술이 좋은 장신공격수 카차라바(FW)도 쾌조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22 ACL 16강에는 동아시아 8개팀과 서아시아 8개팀이 진출하게 된다.

조별예선은 승점-승자승-골득실-다득점-페어플레이-추첨 순서로 순위가 결정되며, 각 그룹 1위팀은 16강에 직행한다.

동·서아시아지역별 2위팀들은 승점-골득실-다득점 -페어플레이-추첨 순서로 순위를 결정해, 상위 3개팀이 16강에 오르게 된다.

상하이 도시 봉쇄령으로 대회를 기권하게 된 상하이 포트FC의 불참은 이번 대회 변수다.

한편 전남과 UCFC의 경기는 15일 오후 11시에 Phatum Thani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tvN의 OIIVE 채널, 네이버스포츠, 아프리카TV를 통해 중계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